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1063-1085

한국어 단어를 기초로 한 수치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남 기 숙† 조 선 미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정신과학교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조선미(미발표)가 수집, 정리한 한국어 수치심 낱말들을 한국형 수치심 척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뢰도, 타당도, 임상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1에서 222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KSS-61을 실시한 결과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고, 기존 수치심 질문지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자기초점주의, 우울, 불안 등 관련된 심리적 특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4요인 구조를 보였다. 이 중 네 번째 요인이 항목 전체 간 상관이 .30이하로 낮아 연구 2에서는 보다 동질적인 수치심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네 번째 요인을 제외한 KSS-53을 905명의 학부생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KSS-53은 양호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 및 문항 전체간 상관을 보였고, 총 3개 요인으로 요인분석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소심한', '숫기 없는' 등의 낱말들로 수줍음을 잘 타는 성격을 묘사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모욕당하는', '능멸당하는'과 같이 주로 외부로부터의 비판이나 모욕, 멸시를 받았다고 여기는데서 오는 강한 수치심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계면쩍은', '낯 뜨거운', '면목 없는'과 같이 주로 얼굴과 관련된 표현이 많은 단어들로서 자의식 또는 가벼운 당황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은 연구 1과 2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세 번째 요인은 연구 1과 연구 2에 포함된 낱말들이 서로 많이 바뀌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수줍음', '모욕감' 하위 요인은 수치심의 구조에서 이론적, 경험적으로 안정된 요인으로 생각되는 반면, '자의식' 요인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법하나 경험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겸손함' 요인은 수치심의 구성개념에 포함시킬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MMPI-2와의 상관에서 수치심은 사회적 회피 경향성, 부정적, 반추적 사고 경향성과 상관이 높은 반면, 신체화나 행동화 경향성과는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았다.

주요어 : 수치심 척도, 수줍음, 모욕감, 자의식, 겸손함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남기숙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Fax : 02-880-6428 / E-mail : psy509@nate.com

살아가면서 수치심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치심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공통된 체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 사회, 그리고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은 상담 현장이나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수치심보다는 정신분열증이나 성격 장애, 우울, 불안, 중독 등의 현상 또는 병리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그런데 최근 우울, 섭식 장애, 알콜 중독, 자살, 성적 학대 등 여러 심리적 장애에서 수치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Andrews, Qian, & Valentine, 2002; Cook, 1988; Ghatavi, Nicolson, MacDonald, Osher, & Levitt, 2002; Lewis, 1987; Sanftner, Barlow, Marschall, & Tangney, 1995).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죄책감이 우울증에 핵심 병인으로 생각되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죄책감은 우울증 환자들이 보고하는 증상 중에 가장 빈도가 낮으며 그보다는 수치심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Prosen, Clark, Harrow, & Fawcett, 1983). 또한 자살 시도 직전에 환자가 느끼는 수치심의 정도가 자살 시도와 가장 관련이 높았다(Ghatavi et al., 2002). 그리고 수치심은 심리적 학대와 PTSD를 매개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드러났으며(Street & Arias, 2001), 스트레스 후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 중 수치심 점수가 변화한 사람들의 면역 지표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 관찰되었다(Dickerson, Kemeny, Aziz, Kim, & Fahey, 2004).

수치심은 자기의 긍정적인 상에 미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Piers & Singer, 1953), 자기 전체(entire self)를 문제시하므로 자기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절하가 일어난 결과 개인은 자신을 바보같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느낀다(Lewis, 1971). 신체적으로 수치심은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떨구며 자세가 위축되고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Tomkins, 1987). 인지적으로 자신을 바보같고, 끔찍하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느끼며, 행동적으로 숨거나 도망가고 싶은 경향성이 증가한다(Nathanson, 1987).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 앞에 노출되었다고(exposed) 느끼는데 이 때 타인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상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내면화된 타인일 수도 있다(Lewis, 1971).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경험되므로 수치심에서는 자기가 관찰하는 자기와 관찰당하는 자기로 분열돼(split) 전체적인 통합성이 상실된다(Lewis, 1971).

수치심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측정의 어려움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된다(Tangney & Dearing, 2002). 일반적으로 정서의 측정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수치심은 그 성질상 모호하며 많은 부분 무의식적이고, 죄책감이나 수줍음, 당황 등 다른 정서들과 겹치는 부분도 많다. 모호하고, 무의식적이며, 다른 구성개념과 상당히 겹치는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Harder, 1995). 임상적으로도 수치심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치료 기간 동안 수치심이 전적으로 부인되다가 나중에야 나타나므로 수치심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특징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한다(Harder & Lewis, 1987).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수치심 측정 방법들이 꾸준히 개발되었는데 크게 보아 면접법(interview), 일화분석

법(narrative approach), 관찰법(observation), 질문지법(questionnares) 들이 있다(Tangney & Dearing, 2002).

이 네 가지 접근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치심 연구는 대부분 질문지법을 사용하고 있다. 질문지법은 연구자가 이론이나 경험 연구를 통해 선정한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답변케 하는 방식인데 이는 실시와 채점이 간편하고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으며 각종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편리하다는 잇점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수치심 연구가 질문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피검 대상이 자신의 수치심 경험을 자각하고 언어화할 수 있으므로 질문지법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질문지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질문지들은 크게 몇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형용사 체크리스트(adjective checklist) 방식이다. '개인 느낌 질문지'(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이하 PFQ, Harder & Lewis, 1987), '수정된 수치심 죄책감 척도'(Adapted Shame and Guilt Scale: 이하 ASGS, Hoblitzelle, 1987, 1988) '내재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Cook, 1988: 이하 ISS), '수치심 경험 척도'(Experience of Shame Scale, Andrews, Quian, & Valentine, 2002: 이하 ESS)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방식의 질문지에서는 수치심을 표현하는 단어(예, '부끄럼을 타는' '치욕스러운' '바보같은' 등)를 제시하고 이러한 감정을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느끼는지 5점 내지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다. PFQ, ASGS가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요인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ESS나 ISS는 수치심 단일 척도이다. 그러나 ISS는 수치심보다 낮은 자존감 개념과 더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각종 자존감 척도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Andrews, 1998). 한편 ESS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Andrews 등(2002)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이를 사용한 연구가 극히 적은 상태이다.

두 번째는 상황설정법(scenario-based measure)이다. '자의식적 정동 검사'(Test of Self-Conscious Affect: 이하 TOSCA, Tangney, 1990), '양심 차원 질문지'(Dimensions of Conscience Questionnaire, Johnson, Danko, & Huang, Park, Johnson & Nagoshi, 1987: 이하 DCQ) 등이 이에 속한다. TOSCA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겠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케 한다. 예를 들면 "점심 시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약속했던 것이 생각났다. 당신은..."이란 상황을 제시하고 다음처럼 반응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의 반응 모두에 평정하게 한다. "난 신중하지 못해"(수치심 경향성), "약속을 못지킨 것을 가능한 한 빨리 만회하려 할 것이다"(죄책감 경향성), "점심 시간 전에 다른 친구가 나를 정신없게 했어"(비난의 외재화), "그 친구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무관심).

그런데 문항을 살펴보면 TOSCA의 수치심 경향성은 수치심의 다양한 경험을 포착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 비난에 가까운 반응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는 '당황스러움' '창피함' '타인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느낌' 등 다양한 수치심 관련 단어들을 제시하는 PFQ나 ASGS가 수치심 구성개념에 보다 충실해 보인다. 그러나 PFQ나 ASGS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요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심에 해당되는 문항 수는 반으로 줄어들고, 표집에 따라 이요인이 아니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Alexander, Brewin, Vearnals, Wolff, & Leff, 1999),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만 요인을 구분할 뿐 더 이상의 하위 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척도들이 수치심의 구성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외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내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치심 경험을 얼마나 잘 포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수치심은 범문화적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문화적 영향이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서이기 때문이다(이호영, 2002; Ausubel, 1955; Benedict, 1946; Tomkins, 1987).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조선미(미발표)의 연구가 매우 의의가 있다. 그녀는 모두 세가지 원천에서 수치심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는 성격 및 정서 행동 특징을 묘사하는 형용사 체크리스트 중에서 수치심과 관련된 단어를 뽑고, 두 번째는 ASGS 및 PFQ-2와 같은 기존의 수치심 척도에 있는 단어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문학자의 자문을 받아 수치심에 해당하는 낱말 및 유사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 관련 단어를 계속 넓혀감으로써 수치심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총 61개의 단어를 414명의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수치심 단어들이 4군으로 요인분석되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미(미발표)의 연구에서 나타난 첫 번째 요인은 '치욕스러운' '모욕당하는' '수치스러운' '무시당하는' 등과 같이 비교적 흔히 겪지는 않지만 상당히 강한 정도의 수치심을 나타나는 단어들이고, 두 번째 요인은 '소심한' '수줍어하는' '주저하는' '사람 앞을 꺼리는' 등 수치심을 쉽게 느끼는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낯뜨거운' '부끄러운' '창피한' '당황하는' 등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느낄만한 감정을 묘사한 단어들이고, 네 번째 요인은 '공손한' '겸손한' 등 대인관계에서 비도전적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반영하는 단어들이었다.

조선미의 연구(미발표)는 한국어로 수치심 관련 표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조선미의 접근 방식은 수치심과 관련된 낱말을 제시하는 PFQ나 ASGS와 같은 형용사식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미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치심 단어를 수집하였고, 또한 이렇게 수집된 단어들의 총점 및 하위 요인 점수가 Beck 우울 척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 불안, 수줍음 척도들과 양호한 상관을 보이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척도가 수치심 구성개념에 충실함을 입증하였다. 조선미의 연구 결과는 무엇보다 한국어에서 수치심을 표현하는 낱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내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매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미(미발표)는 이를 개인의 수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사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한국인의 수치심 구조를 확인하는데 보다 치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MMPI-2와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수치심 척도로서 임상적 사용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조선미(미발표)의 결과를 반복검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연 구 1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22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남학생이 97명, 여학생이 123명이었으며, 표본의 나이는 18세에서 30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1.10세(SD=2.16)였다.

측정도구

한국형 수치심 척도-61(Korean Shame Scale-61; 이하 KSS-61)

조선미(미발표)의 연구에서 수집된 총61 개의 형용사를 질문지 형태로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이 형용사들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개인 느낌 질문지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 이하 PFQ-2)

KSS-61의 공존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치심 척도인 PFQ-2를 실시하였다. PFQ-2는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움', '가벼운 죄책감', '바보가 된 느낌', '강한 죄책감', '창피당한 느낌' 등 총 16문항(10개 수치심 문항, 6개 죄책감 문항)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다(Harder & Lewis, 1987). 본 연구에서는 심종온(1999)이 한국어로 번역한 PFQ-2를 실시하였고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은 .83이었으며, 3주 간격으로 측정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관성은 .91이었다.

수치심 경험 척도 (Experience of Shame Scale; 이하 ESS)

PFQ-2가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심 단일 척도인 Andrews 등(2002)이 개발한 수치심 경험 척도(ES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임상심리전문가 3인이 각자 번역한 뒤, 영어와 한국어에 익숙한 심리학 전공자 두 명의 검토를 거쳐 최종 번역안을 확정하였다. ESS는 총 25문항에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질문지로, 성격적 수치심을 재는 문항(12문항), 행동적 수치심을 재는 문항(9문항), 신체적 수치심을 재는 문항(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관성은 .92였다.

KSS-61의 수렴 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변인 및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Fear of Negative Evaluation; 이하 FNE).

FNE는 Watson과 Friend(1969)가 원래 진위형 30 문항으로 제작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Leary가 12 문항만 뽑아서 5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다시 개발한 단축형 FNE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번안한 한국판 FNE를 사용하였다. 이정윤과 최정훈(1994)의 연구에서 FNE의 내적 일관성은 .90이었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한국판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이하 RSES).

SES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자기 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10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89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

자기초점 주의 성향 질문지(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이하 DSFAS).

DSFAS는 이지영(2001)이 개발한 것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초점 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 자기초점 주의 성향(요인 1) 문항 9개, 자기 몰입(요인 2) 문항 21개로 구성되어, 제시된 문항의 내용이 피검자가 보이는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2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인 1의 경우 내적 일관성은 .79, 2주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7이었다. 요인 2는 각각 .94, .78이었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21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은 .98이고 반분신뢰도는 .91이었다.

한국판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BDI에 대응되는 불안 증상 평가도구로서 21개의 증상항목에 대해서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5)이 번안한 한국판 Beck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일관성은 .93이고 반분신뢰도는 .89이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였다.

한국판 Maudsley 강박 행동 질문지(Maudsley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MOCI)

강박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위형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MOCI는 조대경(198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문항별 내적일관성이 .18~.64로 나타났고, 1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다.

결과 및 논의

신뢰도

KSS-61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일관성과 문항-총점간 상관을 산출하였다. 먼저 전체 척도의 Ch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97로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을 살펴보면 총 61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30미만의 낮은 상관을 보였고 나머지 55개의 문항은 .36에서 .74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30미만의 낮은 상관을 보이는 6개 문항 중 5개 문항이 이후에 실시한 요인분석에서 모두 세 번째 요인에 포함되었다.

요인분석

KSS-61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61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11개가 나왔으나 선행연구 결과(조선미, 미발표)를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한 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및 사각회전법(direct oblimin)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에 묶인 단어들을 조선미(미발표)의 결과와 비교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첫 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모두 18개로 '모욕당하는' '능멸당하는' '멸시당하는' '굴욕스러운' '냉소당하는' '경멸당하는' 등의 낱말이 이에 속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경험하는 강한 수치심 경험을 담는 문항들이었다. 두번째 요인은 '쑥스러운' '숫기없는' '수

표 1. 연구 1(왼쪽 첫번째 칸)과 조선미(왼쪽 두번째 칸)의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문항(연구 1)	문항(조선미)	요인1 (모욕감)	요인2 (수줍음)	요인3 (겸손함)	요인4 (자의식)
16. **능멸당하는**	**능멸당하는**	.875	-.052	.061	.099
4. **경멸당하는**	**멸시당하는**	.830	.132	-.153	.171
26. **멸시당하는**	**모욕당하는**	.818	-.021	.037	.061
27. **모욕당하는**	**비웃음당하는**	.814	-.026	.058	.014
14. **냉소당하는**	**경멸당하는**	.803	.078	-.094	.011
8. **굴욕스러운**	**무시당하는**	.800	.109	-.128	.126
37. **수모를당한**	**조소당하는**	.706	.008	.045	-.133
34. **비웃음당한**	**수모를당한**	.696	-.064	.156	-.171
29. **무시당하는**	**굴욕스러운**	.693	.077	.051	-.072
60. **치욕스러운**	**치욕스러운**	.676	-.117	.029	-.263
11. **남의웃음거리된**	**냉소당하는**	.638	.073	.019	-.047
54. **조소당하는**	**수치스러운**	.623	.039	-.062	-.232
39. **수치스러운**	망신스러운	.620	-.042	.008	-.274
30. **무안을 당한**	자존심상하는	.426	.151	.181	-.277
25. 면목 없는	**남의웃음거리된**	.407	.088	-.023	-.342
50. **자기비하적인**	**무안을 당한**	.366	.287	-.042	-.107
28. 무색한	이름을 더럽힌	.363	.208	.057	-.219
13. 낯 뜨거운	**불명예스러운**	.302	.122	.048	-.235
(이상18)	자기비하적인				
	체면 깎이는				
	떳떳치 못한				
	기가 죽은				
	(이상22)				

표 1. 계속(2)

	문항(연구1)	문항(조선미)	요인1 (모욕감)	요인2 (수줍음)	요인3 (겸손함)	요인4 (자의식)
	42. **쑥스러운**	**주저하는**	-.177	.855	.076	-.025
	38. **수줍어하는**	**쭈뼛거리는**	-.210	.777	.141	.011
	41. **숫기없는**	**숫기없는**	-.098	.774	.095	.126
	36. **소심한**	**자신감 없는**	-.024	.760	.099	.123
	35. **사람앞을꺼리는**	**회피적인**	.217	.726	-.130	.152
	56. **주저하는**	**소심한**	-.001	.725	.049	-.063
	22. **머뭇거리는**	**위축된**	-.038	.695	.017	-.026
	44. **어색한**	**주눅들린**	-.035	.665	-.048	-.144
	51. **자신감없는**	**안절부절못하는**	.097	.650	-.003	-.058
	61. **회피적인**	**머뭇거리는**	.228	.587	-.116	-.002
	57. **쭈뼛거리는**	**쑥스러운**	.097	.586	-.013	-.207
	47. **위축된**	순종적인	.305	.540	.021	-.074
요인2	15. **눈치를보는**	**수줍어하는**	.078	.513	.090	-.153
	32. 부끄러운	**사람앞을꺼리는**	.058	.497	.118	-.262
	23. **머쓱한**	**머쓱한**	.101	.491	-.032	-.229
	19. 당황하는	**어색한**	-.008	.468	.109	-.239
	9. 기가죽은	**눈치를보는**	.367	.466	.094	.062
	24. 멋쩍은	염치없는	.037	.452	-.081	-.276
	55. **주눅들린**	자기를 낮추는	.330	.433	.068	-.127
	43. **안절부절못하는**	(이상19)	.068	.428	-.008	-.371
	5. 계면쩍은		.254	.427	-.063	.087
	58. 창피한		.125	.386	.015	-.380
	18. 곤혹스러운		.233	.368	.103	-.156
	1. 겁많은		.193	.362	.039	.150
	(이상24)					
	7. **공손한**	**겸손한**	-.165	.084	.642	-.055
	10. **깍듯한**	**다소곳한**	.045	-.190	.574	-.139
	2. **겸손한**	**공손한**	.006	.010	.556	.108
	6. **고분고분한**	**겸허한**	.116	.202	.553	.083
요인3	40. 순종적인	**깍듯한**	-.027	.345	.551	.069
	17. **다소곳한**	**고분고분한**	-.135	.142	.518	-.118
	3. **겸허한**	(이상6)	.074	-.070	.423	.136
	49. 자기를낮추는		.216	.235	.243	-.167
	(이상8)					

표 1. 계속(3)

	문항(연구1)	문항(조선미)	요인1 (모욕감)	요인2 (수줍음)	요인3 (겸손함)	요인4 (자의식)
요인4	48. 이름을더럽힌	**낯간지러운**	.261	-.098	.020	-.536
	59. 체면깎이는	낯뜨거운	.306	.085	.122	-.482
	45. 얼굴을들수없는	부끄러운	.221	.163	.054	-.463
	33. 불명예스러운	멋쩍은	.400	-.025	.082	-.432
	46. 염치없는	당황하는	.367	-.043	.099	-.428
	31. 볼낯이없는	계면쩍은	.253	.190	.157	-.426
	21. 망신스러운	면목없는	.315	.202	-.013	-.373
	20. 떳떳치못한	무색한	.263	.154	.137	-.314
	53. 자존심상하는	**볼낯이없는**	.119	.273	-.048	-.293
	12. 낯간지러운	거북스러운	.224	.137	.097	-.272
	52. 자의식강한	창피한	-.032	.091	-.088	-.232
	(이상11)	**얼굴을들수없는**				
		겁많은				
		곤혹스러운				
		자의식강한				
		(이상15)				

* 제시된 요인계수는 연구1의 결과이다.
** 진한 글씨는 두 연구에서 동일한 요인에 포함된 단어들이다.

줍어하는' '소심한' '주저하는' '사람 앞을 꺼리는' '머뭇거리는' '자신감없는' 등 총 24개의 문항이 여기에 속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수줍음을 잘 타는 성격 특징과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공손한' '깍듯한' '순종적인' '겸손한' 등과 같은 총 8개 단어로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미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었다. 네 번째 요인은 '이름을 더럽힌' '체면깎이는' '염치없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창피한' 등 유독 '낯'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얼굴'에 대한 언급이 많은 단어들로 자의식과 관련된 11개 문항들이었다. 단어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첫 번째 요인의 이름을 '모욕감', 두 번째 요인의 이름을 '수줍음', 세 번째 요인의 이름을 '겸손함', 네 번째 요인의 이름을 '자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설명변량의 35.03%를 설명하였고 요인 2는 8.28%, 요인 3은 4.61%, 요인 4는 3.34%를 설명하였다.

표 1에서는 연구1의 결과를 조선미(미발표)의 결과와 비교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두 연구에서 대체로 요인에 속하는 낱말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네 번째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두 연구에서 해당 낱말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다. 이 요인은 얼굴이나 체면과 관련된 '자의식' 요인이었는데 해당 단어들을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보

표 2. 요인상관행렬

요인	요인1 (모욕감)	요인2 (수줍음)	요인3 (겸손함)	요인4 (자의식)
요인1	1.000			
요인2	.439	1.000		
요인3	.117	.227	1.000	
요인4	-.449	-.356	-.106	1.000

아 요인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요인을 구성하는 낱말은 두 연구에서 서로 많이 바뀌었다.

요인 간 상관행렬을 표 2에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요인간의 상관은 중등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 번째 요인이 유독 다른 요인들과 상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이하인 여섯 문항 중 다섯 문항이 모두 이 세 번째 요인에 속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척도의 동질성 측면에서 이 세 번째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다소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듯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KSS-61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치심 척도인 PFQ-2, ESS와 상관을 구하였고 또한 여타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을 구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KSS-61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 척도인 PFQ-2 및 ESS와 양호한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각각 $r(222)=.69$ $p<.01$; $r(222)=.66$ $p<.01$. 또한 수치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자기초점적 주의, 우울 및 불안 척도와 중등도의 상관을 보였다, 각각 $r(222)=.41$ $p<.01$; $r(222)=.45$ $p<.01$; $r(222)=.48$ $p<.01$; $r(222)=.43$ $p<.01$. 그리고 수치심과 역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와는 중등도의 부적 상관을, 수치심과 관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박 척도와는 낮은 정도의 상관만을 보였다, 각각 $r(222)=-.34$ $p<.01$; $r(222)=.30$ $p<.01$. 따라서 KSS-61은 수치심 척도로서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분석 결과 세 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항목-전체간 상관이 낮은 것을 보면 이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전체 다른 문항들과 좀 다른 것을 재고 있는 듯하였다.

표 3. 한국판 수치심 척도 KSS-61과 기존의 수치심 척도 및 관련 변인과의 상관

	PFQ-2	ESS	FNE	RSES	SCS	BDI	BAI	MOCI
KSS-61	.69**	.66**	.41**	-.34**	.45**	.48**	.43**	.30*
요인1	.61**	.48**	.27**	-.37**	.20**	.52**	.46**	.19*
요인2	.64**	.65**	.44**	-.34**	.49**	.42**	.38**	.34**
요인3	.24**	.30**	.24**	.04	.26**	.15*	.17*	.21**
요인4	.64**	.58**	.36**	-.26**	.38**	.41**	.37**	.21**

* $p<.05$. ** $p<.01$.

*** PFQ-2: 개인 느낌 질문지, ESS: 수치심 경험 척도, FNE: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SES: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 SCS: 자기초점적 주의, BDI: 벡 우울 척도, BAI: 벡 불안 척도 MOCI: 모슬리 강박 척도

표 3의 여러 변인들간의 상관에서도 요인 3은 KSS-61 총점 및 다른 하위 요인들에 비해 여러 변인들과의 상관의 크기가 뚜렷이 줄어들며 특히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 양상을 보면 이 요인은 부정적인 색채보다는 중립적인 색채를 띠는 것 같았다, $r(222)=.04$ *ns*. 이에 연구 2에서는 보다 동질적인 수치심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 세 번째 요인의 8문항을 제외하고 53문항으로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 2에서는 MMPI-2와의 상관을 알아봄으로써 한국형 수치심 척도의 임상적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연 구 2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부생 90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묶음을 실시하였다. 이 중 항목을 누락시킨 3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87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494명, 여학생이 379명이었으며, 표본의 나이는 18세에서 33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2.04(SD=2.59) 였다

측정도구

한국형 수치심 척도-53(Korean Shame Scale-53;이하 KSS-53)

예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KSS-61에서 8개 문항을 제외한 총53개의 문항을 질문지로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이 형용사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다면적 인성검사-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이하 MMPI-2)

임상 장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객관형 표준화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다면적 인성검사-2를 실시하였다. 원판 MMPI와 비교해서 MMPI-2에서는 내용상 부적절하거나 성차별적인 문항들을 개선하였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는 주제나 문제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한국판 MMPI-2는 미국에서 출판된 MMPI-2를 번역하고 이를 <2000년 대한민국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기초하여 남자 651명, 여자 701명, 총1,352명을 규준집단으로 해서 표준화되었다. 총 5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그렇다/아니다'로 응답하게 된다(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결과 및 논의

신뢰도

KSS-53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일관성과 문항-총점간 상관을 산출하였다. 먼저 전체 척도의 Ch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97으로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을 살펴보면 .47에서 .73으로 모든 문항에서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KSS-53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53개 문항에 대해 세 개의 요인을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추출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회전방식은 사교회전(direct oblimin) 방식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간 상관 행렬을 표 4와 표 5에 각각 제시하였다.

요인 1의 20개 문항들은 '쑥스러운' '숫기없는' '수줍어하는' '소심한' '주저하는' '사람 앞을 꺼리는' '머뭇거리는' '자신감없는' 등 수줍음을 잘 타는 성격 특징과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요인 2의 25개 문항들은 '모욕당하는' '능멸당하는' '멸시당하는' '수모를 당한' 등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경험하는 강한 수치심 경험을 담는 문항들이었다. 요인 3의 8개 문항은 '계면쩍은' '낯뜨거운' '자의식이 강한' 등 자의식과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설명변량의 21.2%를 설명하였고 요인 2는 4.0%, 요인 3은 1.8%를 설명하였다.

연구 1에서 '모욕감'이 요인 1로, '수줍음'이 요인 2로 나왔지만 연구 2에서는 그 순서가

표 4. 한국판 수치심 단어 척도-53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요인1(수줍음)	요인2(모욕감)	요인3(자의식)
요인 1	34. 숫기없는	.827	-.158	-.014
	30. 소심한	.817	-.048	.033
	44. 자신감없는	.777	.126	.136
	32. 수줍어하는	.766	-.194	-.161
	49. 주저하는	.738	.013	-.116
	35. 쑥스러운	.735	-.167	-.196
	40. 위축된	.685	.164	.082
	29. 사람앞을 꺼리는	.630	.110	.077
	54. 회피적인	.604	.139	-.019
	48. 주눅들린	.593	.283	.031
	16. 기가 죽은	.571	-.091	-.375
	37. 머뭇거리는	.566	-.029	-.309
	05. 어색한	.562	.262	.038
	01. 자기비하적인	.547	.012	.028
	50. 겁많은	.534	.080	-.254
	10. 쭈뼛거리는	.495	.144	-.186
	43. 눈치를 보는	.483	.393	.193
	36. 안절부절못하는	.432	.264	-.077
	51. 창피한	.396	.187	-.262
	26. 부끄러운	.362	.167	-.241

표 4. 계속

	문항	요인		
		요인1(수줍음)	요인2(모욕감)	요인3(자의식)
요인 2	21. 모욕당하는	-.156	.923	.054
	11. 능멸당하는	-.144	.890	.054
	20. 멸시당하는	-.119	.879	.024
	31. 수모를 당한	-.042	.814	.014
	28. 비웃음당한	.027	.766	.010
	47. 조소당하는	.012	.763	-.007
	53. 치욕스러운	.002	.747	.007
	41. 굴욕스러운	-.015	.687	.086
	04. 이름을 더럽힌	.090	.687	.043
	02. 냉소당하는	.092	.680	.044
	09. 경멸당하는	.046	.679	-.064
	23. 무시당하는	.194	.675	.109
	33. 수치스러운	.042	.661	-.101
	06.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044	.630	-.077
	27. 불명예스러운	.101	.599	-.053
	52. 체면깎이는	.124	.575	-.106
	24. 무안을 당한	.088	.526	-.192
	15. 망신스러운	.114	.508	-.214
	38. 얼굴을 들 수 없는	.130	.508	-.132
	39. 염치없는	.022	.466	-.174
	19. 면목없는	.046	.451	-.279
	22. 무색한	.115	.431	-.225
	25. 볼 낯이 없는	.081	.421	-.243
	46. 떳떳치못한	.259	.346	-.097
	14. 자존심 상하는	.146	.343	-.306
요인 3	18. 멋쩍은	-.034	.052	-.928
	17. 머쓱한	.032	.010	-.898
	07. 낯간지러운	.051	.197	-.431
	13. 당황하는	.362	.072	-.408
	12. 곤혹스러운	.284	.145	-.352
	03. 계면쩍은	.256	.224	-.303
	08. 낯뜨거운	.121	.247	-.284
	45. 자의식이 강한	.058	.049	-.194

표 5. 요인상관행렬

요인	요인1 (수줍음)	요인2 (모욕감)	요인3 (자의식)
요인1	1.000		
요인2	.552	1.000	
요인3	-.566	-.394	1.000

바뀌어 '수줍음'이 요인 1, '모욕감'이 요인 2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제시된 요인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두 연구에서 각 요인들에 속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수줍음' '모욕감' 요인은 수치심에서 안정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요인 3인 '자의식' 요인은 연구 1과 2에서 동일한 단어가 '자의식이 강한'이라는 단어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해당 단어들이 대폭 바뀌었다. 수치심에서 '자의식' 요인은 수치심의 하위 요인으로 중요해 보이나 경험 연구상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조선미(미발표)의 경우에서 '자의식' 요인에 속하는 단어들은 총 15개로 본 연구의 연구 1과 연구 2에서 나타난 단어들을 상당 부분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요인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는 단어 표현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였다. 한편 요인간 상관 행렬을 구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요인간 상관은 중등도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KSS-53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 임상적 사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2와의 상관을 구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상관 양상을 크게 몇 가지 군으로 나뉘어 살펴보면, KSS-53은 우선 '방어 및 대처'측면에서 타당도 척도인 L, K, S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F 척도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각각 $r(873)=-.37$ $p<.01$; $r(873)=-.48$ $p<.01$; $r(873)=-.50$ $p<.01$; $r=.35$ $p<.01$. 이러한 양상은 MMPI에서 타당도 척도의 여러 형태 중 삿갓형에 해당하는 것으로(김중술, 1988),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방어적 태도가 적거나 방어에 실패하며, 적응 및 대처에 곤란이 있을 수 있고, 문제해결에 자신이 없으며, 우울 등의 각종 임상적 증상 및 정신병리가 높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낮은 자존감과 상관이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r(873)=.57$ $p<.01$.

다음으로 KSS-53은 '사회성' 지표 중에서 사회적 회피를 내용으로 하는 Si, SOD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사회적 책임 완수를 내용으로 하는 Re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각 $r(873)=.56$ $p<.01$; $r(873)=.42$ $p<.01$; $r(873)=-.33$ $p<.01$. 이는 수치심이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데서 발생하고 후속적으로 사회적 회피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수치심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을 불편해하고 회피하며 비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KSS-53은 여러 임상 증상 중에서 특히 불안 및 우울관련 척도들과 상관이 높았다(불안 관련 척도 Pt, RC7, ANX, FRS, OBS, 각각 $r(873)=.44$ $p<.01$; $r(873)=.55$ $p<.01$; $r(873)=.57$ $p<.01$; $r(873)=.57$ $p<.01$; $r(873)=.55$ $p<.01$; 우울 관련 척도 D, DEP, RCd, RC2 각각 $r(873)=.44$ $p<.01$; $r(873)=.53$ $p<.01$; $r(873)=.60$ $p<.01$; $r(873)=.38$ $p<.01$). 이들 척도는 모두 내재화(internalizing) 척도로서 이 척도의 점수가

표 6. 한국판 수치심 척도-53과 편집, 우울 척도 및 다면적인성검사와의 상관

	방어 및 대처				사회성				불안				
	L	F	K	S	LSE	Si	SOD	Re	Pt	RC7	ANX	FRS	OBS
KSS-53	-.37**	.35**	-.48**	-.50**	.57**	.56**	.42**	-.33**	.43**	.55**	.57**	.57**	.55**
요인1	-.31**	.31**	-.43**	-.44*	.58**	.62**	.50**	-.28**	.46**	.51**	.55**	.23**	.41**
요인2	-.34**	.36**	-.43**	-.45**	.51**	.43**	.29**	-.34**	.38**	.51**	.51**	.18**	.47**
요인3	-.33**	.22**	-.41**	-.41**	.35**	.36**	.25**	-.27**	.25**	.41**	.39**	.16**	.53**

	외재화 및 행동화				피해의식			우울			
	Pd	Ma	ANG	ASP	RC9	Pa	RC6	D	DEP	RDd	RC2
KSS-53	.19**	.08*	.37**	.24**	.28**	.23**	.24**	.44**	.53**	.60**	.38**
요인1	.16**	.02	.28**	.18**	.17**	.21**	.17**	.49**	.53**	.60**	.46**
요인2	.23**	.15**	.39**	.25**	.30**	.24**	.28**	.35**	.47**	.52**	.28**
요인3	.07*	.10**	.31**	.21**	.27**	.13**	.15**	.24**	.34**	.40**	.18**

	신체화			기태적 경험			부적응				비임상 지표		
	Hs	HEA	RC1	Sc	BIZ	RC8	FAM	WRK	TRT	Mt	VRIN	TRIN	Mf
KSS-53	.17**	.34**	.36**	.38**	.29**	.35**	.39**	.60**	.50**	.59**	.12*	.04	.07*
요인1	.15**	.30**	.31**	.35**	.22**	.28**	.34**	.61**	.49**	.59**	.08*	.08*	.04
요인2	.19**	.34**	.37**	.37**	.33**	.37**	.39**	.51**	.44**	.51**	.15*	.03	.10**
요인3	.09**	.25**	.28**	.24**	.21**	.28**	.30**	.42**	.35**	.40**	.03	.06	.06

S=과장된 자기 제시, LSE=낮은 자존감, SOD=사회적 불편감, Re=사회적 책임감,
ANX=불안, FRS=공포, OBS=강박, DEP=우울, RCd=의기소침, HEA=건강염려, RC1=신체증상 호소,
ANG=분노, AGGR=공격성, ASP=반사회적 특성, RC4=반사회적 행동, RC9=경조증적 상태,
RC6=피해의식, CYN=냉소적 태도, RC7=역기능적 부정 정서, BIZ=기태적 정신상태, RC8=기대적 경험,
FAM=가정 문제, WRK=직업적 곤란, TRT=부정적 치료 지표, Mt=대학생활부적응
* p<.05. ** p<.01.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기분과 부정적인 사고 경향이 높다. 이는 수치심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문제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KSS-53은 여러 가지 부적응 척도들과도 관련이 높았고, 특히 일과 직업적 영역에서, 그리고 치료적 맥락에서도 적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적응, FAM, WRK, TRT, Mt, 각각 r(873)=.39 p<.01; r(873)=.60 p<.01; r(873)=.50 p<.01; r(873)=.59 p<.01).

한편 수치심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문제삼기 때문에 외재화(externalizing)나 행동화 지표와는 역상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게 KSS-53은 Pd, Ma, ASP, RC4 척도들과는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각각 r(873)=.19 p<.01; r(873)=.08 p<.01, r(873)=.24

$p<.01$; $r(873)=.26$ $p<.01$. 이는 이 척도들이 기본적으로 외재화 경향성, 행동화 경향성이 높은 척도임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있는 결과였고,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활력 수준이 낮고 위축되어 있으며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흐르기보다는 안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치심은 자신을 문제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 투사되는 경향도 크다. 특히 수치심에서 '모욕감' 요인은 수치심의 원천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나 의심, 원망 등의 변인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KSS-53은 이러한 면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즉, Pa, RC6과 각각 $r(873)=.23(p<.01)$, $r(873)=.24(p<.01)$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만 나타낸 것이다. 적으로 실시한 편집성향 척도와는 $r(873)=.59(p<.01)$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 수치심은 중요한 후속반응으로 회피 이외에도 타인에 대한 분노나 공격성을 일으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한다(Nathanson, 1987; Retzinger, 1987). 본 연구에서도 세부적인 상관의 양상을 살펴보면 '모욕감' 요인은 확실히 피해의식이나 분노, 공격성 지표와 상관이 높았으나 수치심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보다 충분한 연구를 필요로 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수치심 경향성과 신체화, 기태적 경험은 그리 상관이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은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신체화 관련 척도 Hs, HEA, RC1, 각각 $r(873)=.17$ $p<.01$; $r(873)=.34$ $p<.01$; $r(873)=.36$ $p<.01$ 기태적 경험 관련 척도 Sc, BIZ, 각각 $r(873)=.38$ $p<.01$; $r(873)=.29$ $p<.01$; $r(873)=.35$ $p<.01$). 한편 임상적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심 척도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척도들과 KSS-53은 낮은 수준의 상관 혹은 관련이 없음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VRIN이나 TRIN, 혹은 Mf 척도들이 그런 경우였다, 각각 $r(873)=.12$ $p<.01$; $r(873)=.06$ $n.s$; $r\cdot 873)=.07$ $p<.05$.

한편 KSS-53의 하위 요인들과 MMPI 척도들과의 상관의 양상은 하위 요인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보여 주었다. 표 6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요인(수줍음)은 전체 점수와 비슷한 양상으로 MMPI 각 지표와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성 지표들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요인(모욕감)은 전체 점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대체로 첫 번째 요인보다 상관의 크기가 작었지만, 피해의식, 행동화, 외재화와 관련되는 척도들과의 경우에는 첫 번째 요인보다 더 큰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인이 보다 내부로부터 비롯되거나 자기 자신에게 귀인하는 수치심이라면 두 번째 요인은 수치심의 원천이나 귀인이 외부로 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이 MMPI 척도들과 갖는 상관의 양상은 첫 번째, 두 번째 요인보다 훨씬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요인들이 보다 강한 수치심 감정이라면 세 번째 요인은 이보다 훨씬 완화된 수치심 경험으로 생각된다(조선미, 미발표). 혹은 이 세 번째 요인에 속하는 낱말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신뢰롭게 쓰일 수 있는 수치심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조선미(미발표)가 수집한 한국어 수치심 단어들을

질문지로 만들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61문항의 KSS-61은 4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은 '모욕당하는' '멸시당하는'과 같이 주로 외부로부터 비판이나 모욕, 멸시를 받는데서 느끼는 강한 수치심 감정, 두 번째 요인은 '쑥스러운' '숫기없는' 등과 같이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과 관련된 수치심 표현들, 세 번째 요인은 '공손한' '깍듯한'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 네 번째 요인은 '이름을 더럽힌' '체면깎이는'과 같이 자신의 체면이나 이름, 명예를 의식하는 자의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Chronbach-alpha 계수가 .97로 내적일관성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모든 문항들에서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 6개의 문항에서 문항-총점간 상관이 .30이하로 낮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문항들이 모두 세 번째 요인에 포함되었다. 연구자들이 문항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도 다른 문항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라면 이 세 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정반대로 품위있는 인간이라면 지녀야 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태도와 미덕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요인이 다른 문항들과는 보다 이질적인 영역을 재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번째 요인에 속하는 낱말 8개를 제외한 총53개의 문항으로 KSS-53을 구성하여 좀 더 큰 표집을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도 연구를 계속하였다.

연구 2에서 53문항의 KSS-53은 Chronbach-alpha 계수가 .964로 내적일관성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모든 문항들에서 교정된 문항-총점간 상관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 3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은 '소심한' '숫기없는' 등과 같이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을 나타내고, 두 번째 요인은 '모욕당하는' '능멸당하는'과 같이 주로 외부로부터 비판이나 모욕, 멸시를 받는데서 느끼는 강한 수치심 감정을 나타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은 연구 1 및 조선미(미발표)의 연구에서와 요인의 제시 순서가 바뀌고 일부 문항이 서로 다른 요인에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수치심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요인은 위의 두 요인과 달리 해당 낱말의 수가 이전 연구들과 달리 반으로 줄어들었다. 세 번째 요인은 '멋쩍은' '머쓱한' '낯간지러운' '당황하는' '계면쩍은' '낯뜨거운' '자의식 강한' 등의 낱말로 구성되었는데, 이 요인에 속한 낱말들을 살펴볼 때 유달리 '낯'이라든가 '면' '피' '얼굴' 등 주로 얼굴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얼굴이나 피부는 다른 사람과 경계를 짓는 자기 자신의 고유함, 정체감의 상징으로서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요인의 성격을 달리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수치심이 주로 외부로부터 유발되고 공격적 색채가 강하다면 이 세 번째 요인의 수치심은 보다 내부로부터 유래하고 공격적 색채는 적다.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에 비해 이 세 번째 요인은 여러 변인과의 상관의 크기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요인의 성격을 '자의식'이 아니라 '가벼운 수치심' 혹은 '당황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보인다. 연구 2에서 이 요인에 해당하는 낱말의 수가 조선미(미발표)의 연구나 연구 1과 달리 대폭 줄어들은 현상도 이 요인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하게 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 2에서는 조선미(미발표)나 연구 1

에서 나타난 네 번째 요인을 제거하고 수치심 척도를 구성하였다. 왜냐하면 이 요인이 연구 1에서 문항 전체 간 상관이 낮게 나타나고 요인간 상관도 유독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도 이 요인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 자기초점적 주의, 불안, 우울 및 강박 척도 등 여러 변인간의 관계가 전체 점수나 다른 세 개의 하위 요인에 비해 상관의 크기가 대폭 감소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서의 이 요인이 상당히 독립적이며 안정적이지만 다른 수치심 요인과의 관련성은 비교적 낮음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질문지의 동질성을 우선하여 이 요인을 전체 수치심 척도에서 제외하였지만 이 요인을 수치심의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할지 제외할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수치심에는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인간성의 핵심으로서 수치심 감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Kaufman, 1987; Wurmser, 1989).

사실 수치심은 아직도 개념 정립이 진행 중인 감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수치심은 당황이나 수줍음, 죄책감과 같은 유사 정서와 분리 및 구분 문제가 여전히 논란 속에서 진행 중이다(Fisher & Tangney, 1995). 또한 수치심에 대한 통일된 이론이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심 질문지 역시 수치심의 개념을 필요충분적으로 포괄하고 있는지 계속 검증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 관련 변인과의 관계는 수치심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KSS-53과 편집, 우울 척도, 다면적인성검사-2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에 실패하며 자존감이 낮고 적응 및 대처에 곤란이 있을 수 있으며 우울 등을 포함한 여러 임상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거나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치심 경향성은 여러가지 사회적 회피 척도와 관련이 높았고, 불안, 우울 척도 및 부적응 척도와 관련이 높았다. 이에 비해 외재화, 행동화, 심리적 에너지 척도들과는 강한 역상관을 나타냈고, 그 정도는 적지만 피해의식 및 분노, 공격성 척도들과도 중간 정도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화 경향성, 기태적 경험 척도들과는 관련이 낮은 편이었으며 비임상 지표이므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척도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중 일부는 미리 예상하지 않고 탐색적이었으나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나왔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어 단어를 기초로 수치심 질문지를 개발하여 그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PFQ-2와 TOSCA가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심종은, 1999)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 수치심 척도는 한국어에서 수치심 관련 표현을 기초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피검자를 대상으로 수치심을 연구하는데 더 적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치심은 예로부터 문화적 차이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Benedict(1946/1996)가 미국과 일본, 서양과 동양을 죄책감 문화, 수치심 문화로 구분한 이래 이러한 구분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임상 연구에서는 수치심의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에 따라 수치심의 빈도나 의미, 대응 방식 등이 다를 수 있다. 앞으로 수치심의 문화적 차이, 외국에서 개발된 수치심

척도와 국내에서 개발된 수치심 척도의 비교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KSS-61과 KSS-53은 조선미(미발표)가 개발한 수치심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여러 연구에서 동일 요인에 반복적으로 소속되는 단어들이나 요인계수가 높은 단어들, 혹은 연구자의 안목으로 선택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치심 질문지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지 않은 점, 첫 번째(수줍음), 두 번째(모욕감) 요인을 제외하고 세 번째, 네번째 요인의 성격이 다소 불안정하게 나타난 점, 그리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의 확인을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MMPI와의 상관은 KSS-53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또는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석만 (1995). 정신병리와 인지 I: 정서장애를 중심으로.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 연구 세미나 발표집: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김중술 (1988). 다면적인성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다면적 인성검사 II 매뉴얼. (주)마음사랑

심종은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이지영 (2001). 대인불안 성향자의 자기초점 주의 성향의 특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현우 (2005). 편집증의 하위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호영 (2002). 부끄러움. 서울: (주)청년의사.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전철은, 현명호 (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763-776.

조대경 (1985). 강박행동의 객관적 측정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0(1), 78-90.

조선미 (미발표). 수치심? 부끄러움? 수줍음?: 한국에서 'Shame'의 의미와 연령에 따른 지각차이. 미발표 연구자료.

최정훈, 이정윤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 21-47.

하유미 (1998). 아동의 성, 초기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 자부심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경희, 임지영, 민병배, 이정흠, 문경주, 김중술 (2006). 한국판 MMPI-2의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533-564.

Alexander, B., Brewin, C. R., Vearnals, S., Wolff, G., & Leff, J. (1999). An investigation of shame and guilt in a depressed samp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2,* 323-

338.

Andrews, B. (1998). Methodologic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shame research. In Gilbert & Andrews,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 (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1.* 29-42.

Ausubel, D. P. (1955).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guilt in the socializing process. *Psychological Review, 62,* 378-390.

Benedict, R.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Boston: Houghton Mifflin.

Binder, (1970). *The relative proneness to shame of guilt as a dimension of character 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Bradshaw, J. (1988).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

Butcher, J. N., Dahlstrom, W. G., Graham, J. R., Tellegen, A., & Kaemmer, B. (1989)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Manual for administration and scor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hoh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Dickerson, S. S., Kemeny, M. E., Aziz, N., Kim, K. H., & Fahey, J. L. (2004). Immunological effects of induced shame and guilt, *Psychosomatic Medicine, 66,* 124-131.

Eales, M. J. (1989). Shame among unemployed me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8.* 783-789.

Fisher & Tangney, (1995).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368-392). New York, NY: Guilford Press.

Ghatavi, K., Nicolson, R., MacDonald, C., Osher, S., & Levitt, A. (2002). Defining guilt in depression: a comparison of subjects with major depression, chronic medical illness and healthy control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8,* 307-315.

Gottshalk L., & Gleser, G. (1969).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state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verbal behavio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ramzow, R., & Tangney, J. P. (1992). Proneness to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ty Bulletin, 18,* 369-376.

Harder, D. W. (1975). *The defensively high self-esteem m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Harder. D. W. (1984). Character style of the defensively high self-esteem m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26-35.

Harder, D. W. (1995). Shame and guilt assessment, and relationships of shame- and guilt-proneness to psychopathology. In J. P. Tangney, &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368-392). New York, NY: Guilford Press.

Harder, D. W.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6. Hillsdale, NJ:Erlbaum. Pp. 89-114.

Hoblitzelle, W. (1987). Differentiating and measuring shame and guilt:The relation between shame and depression. In H. B. Lewis (Ed.),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oblitzelle, W. (1988). *The measurement of shame and guilt and the role of shame in depression.*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Yale University in candidate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Johnson, R. D., Danko, G. P., Huang, Y. H., Park, J. Y., Johnson, S. B., & Nagoshi, C. T. (1987). Guilt, shame and adjustment in three cul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357-364.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Lewis, H. B. (1987). Introduction: shame-the "Sleeper" in psychopathology. In H. B. Lewis (Eds.),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ewis, M., Allesandri, S.,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 630-638.

Lindsay-Hartz, J. (1984). Contrasting experiences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6), 689-704.

Lindsay-Hartz, J., de Rivera, J., & Mascolo, M. F. (1995). Differentiating guilt and shame and their effects on motivation. In J. P. Tangney, &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274-300). New York : Guilford Press.

Nathanson, D. L. (1987).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iers, G., & Singner, A. (1953). *Shame and guilt,* Springfield, IL: Thomas.

Prosen, M., C., Clark, D. C., Harrow, M., Fawcett, J. (1983). Guilt and conscience in major depressiv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39-844.

Retzinger, S. M. (1987). Resentment and laughter: video studies of the shame-rage spiral. In Lewis (Ed.),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versity Press.

Sanftner, J. L., Barlow, D. H., Marschall, D. E., & Tangney, J. P. (1995).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eating disorders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315-324.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 65-78.

Tangney, J. P. (1990).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2-111.

Tangney, J. P., Burggraf, S. A., & Wagner, P. E. (1995).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psychopathological problems.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343-367). New York: Guilford.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Tomkins, S. (1987). Shame.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Guilford.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Wicker, F. W., Payne, G. C., & Morgan, R. D. (1983). Participant description of guilt and shame. *Motivation and Emotion, 7,* 25-39.

Wurmser, L. (1981). *The mask of sham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Zung,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e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원고접수일 : 2006. 8. 11
게재결정일 : 2006. 10. 2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1063-108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Shame Scale

Ki Sook Na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Psychiatry

Sun Mi Cho
Ajou University Medical Department

Hoon-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present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hame scale which is based on Korean words. The Korean Shame Scale-61(KSS-61)was constructed by using the 61 words which is gathered by Cho (unpublished). In study 1, the KSS-61 was administered to 222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KSS-61 was analyzed by 4 factors, the first factor was mortification, and the second factor was shyness, the third factor was self-consciousness, the last factor was humidity. Four factors had a good internal consistency except for 4th factor (humidity factor). The items of the 4th factor showed low item-total correlation. So, in study 2 The Korean Shame Scale-53(KSS-53)was constructed by the 4th factor being removed in the KSS-61, and administered to 905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was as follows. First, factor analyses of the KSS-53 revealed a three factor solution (Shyness, mortification, and self-consciousness) which had good internal consistency. Second, the items of the first and second factors had good consistencies in comparison to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many items of the third factor (self-consciousness) were changed in comparison to the study 1, therefore the third factor was thought to be unstable. Third, KSS-53 showed high negative correlation with L, K, 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K scale in MMPI-2. And also it had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discomfort scales such as Si, and SOD. And KSS-53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xiety and depression scales(Pt, ANX, FRS, OBS, D, DEP etc.)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ternalizing and acting-out scales(Pd, ASP, Ma, RC9). And KSS-53 had lower correlations with somatization indices(Hs, HEA). In considering all results, KSS-53 was thought to have considerable reliability and validity. Some limitations and issues were discussed.

Keywords : Shame Scale, shyness, humiliation, self-consciousness, humidity